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 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한글판

shinacho2003@daum.net (담당자)

判 決 文

在日大韓基督教会治理委员会は、聖書・在日大韓基督教会憲法・規則・戒規・裁判規定に基づき、教会の神聖と秩序を維持するために、提出された証拠等に基づいて慎重な審理をした結果、以下のとおり、判決する。

提訴人： 在日大韓基督教会東京教会 長老 全三郎・金日煥
控訴人： 在日大韓基督教会東京教会 担任牧師 金海奎
控訴人(上訴人)： 在日大韓基督教会東京教会 長老 林栢生

主 文 (懲罰の内容)

第 1 控訴人金海奎牧師に対する在日大韓基督教会関東地方会治理部の判決を取り消し、控訴人金海奎牧師を「停職」に処する。

但し、控訴人金海奎牧師が下記の条件を履行して、東京教会の秩序が回復されていると判断される場合には解罰することもあり得るが、そうでない場合には、さらに重い懲罰を下すこともあり得る。

記

以下のすべての条件を満たす悔い改めの謝罪文を作成し、2015年度東京教会公同議会・関東地方会定期総会・2015年4月開催予定の総会常任委員会に提出すること。

- ア) 2013年4月7日に開催された臨時公同議会において、在日大韓基督教会憲法に規定されていない長老信任投票を強行して全三郎長老と金日煥長老の長老視務を解任に至らしめたことが総会憲法に違反していることを認め、謝罪すること。
- イ) 違法な長老信任投票に基づき全三郎長老と金日煥長老を視務長老として認めず、また、控訴中の林栢生長老を視務長老として認めないことにより、東京教会の信徒間に不信と混乱を招いたことを認め、謝罪すること。
- ウ) 東京教会の担任牧師であり、堂会長という教会の責任者としての職責にありながら、関東地方会及び総会の負担金納付を怠り、そのことにより関東地方会と総会に深刻な財政的影響を及ぼしていることを認め、謝罪すること。
- 第 2 控訴人林栢生長老に対する在日大韓基督教会東京教会治理会の判決及び関東地方会治理部の判決を取り消し、控訴人林栢生長老を「停職」に処する。

罪となるべき事実

第 1 控訴人金海奎牧師について

- 控訴人金海奎牧師は、2013年4月7日開催の在日大韓基督教会東京教会臨時公同議会において、長老信任投票を実施することが在日大韓基督教会の憲法に違反することであると信徒の意見を無視した上、独断的な解釈に基づき、長老信任投票を実施したうえ、過半数の信任を得ていない全三郎長老及び金日煥長老の視務解任を強行したものである。
- 控訴人金海奎牧師は、在日大韓基督教会憲法委員会が前項の長老信任投票が無効であり、同長老らの視務解任は無効であるとの憲法解釈をしていることに反して、同長老らの職務を認めなかったものである。
- 控訴人金海奎牧師は、2013年1月20日開催の在日大韓基督教会東京教会の公同議会において実施された長老選出選挙の開票を担当した林栢生長老が故意に不正開票を行ったことに対して、同年3月31日開催の堂会において、林栢生長老に対して「除名」の治理を行ったところ、その判決を不服として在日大韓基督教会関東地方会に控訴していることに関して、「被告人が控訴している場合にはいまだにその職務を失わない」との在日大韓基督教会憲法委員会の憲法解釈に従わずに、林栢生長老の視務長老としての職務を認めなかったものである。

第 2 控訴人林栢生長老について

控訴人林栢生長老は、2013年1月20日開催の在日大韓基督教会東京教会の公同議会において実施された長老選出選挙の開票の際に、故意に不正開票を行ったものである。

中略・・・

(6面に続く→)

第5 懲罰の選択理由について

1 金牧師について

金牧師は、在日大韓基督教会と宣教協約を締結する大韓イエス教長老会（合同）から派遣された宣教師として関東地方会に加入が認められた後、関東地方会から東京教会の担任牧師として委任を受けた牧師であり、かつ、堂会長である。その意味は、宣教協約に基づき派遣された在日大韓基督教会の憲法と、加入を認め委任式を挙行した関東地方会の規則を遵守し、委任を受けた東京教会の歴史を尊重し、教会の平和的一致に努め、地方会の円滑な交流の維持と発展、および弱小教会の援助などに模範的な行動を取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たのである。

にもかかわらず、本件問題とそれに関連する、総会と地方会における金牧師のこの間の一連の行動は、教会と地方会と総会の秩序保全から著しく逸脱してきた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牧者としてのそのような行動が、この間、在日大韓基督教会内の教会信徒および教役者の間にどれほど憂慮と心痛の祈りを広げる結果となってしまったかについて、金牧師は謙遜に思いを馳せ、主の前に悔い改めることが求められる。

在日大韓基督教会の106年に及ぶ宣教の歴史発祥教会であり、これまで在日の艱難辛苦の歴史の中で、総会においても地方会においても母（オモニ）教会として尊敬すべき多くの模範的な貢献を、愛をもってなしてきた東京教会の担任牧師であることの自覚の初心に立ち返ることを、当治理委員会は強く促す次第である。

このような観点からして、金牧師は、林長老の不正開票に関わりがあったことまで認めることはできないが、議長たる堂会長として、共同議会において総会憲法に違反する長老信任投票を行ったこと、再開票に至るまでの金牧師の判断と行動が今日の東京教会の混乱を招いていること、長老信任投票にかかわる長老の資格に関する憲法委員会の有権解釈に一切応じようとせず、対立姿勢を取り続けたことの責任は重大である。

中略・・・

また、停職の期間については、無期限とするが、2015年4月予定の総会常任委員会までに、主文に記載されている条件を履行し、東京教会の秩序が回復されたと当治理委員会が判断した場合には、停職を解罰することもあり得るが、逆に、悔い改めと謝罪がなく、東京教会の秩序が回復されてい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には、やむを得ず、免職の判決をすることも検討されることを付言する。

2 林長老について

いかなる理由があったとしても、不正開票を行ったことやそのことが原因で東京教会を混乱させ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罪を免れることはできない。

仮にそのような教唆が金牧師から実際にあったとしても、主イエス・キリストへの信従とは、即ち牧師への無条件の服従ではない。

牧師の牧会を心から愛をもって助けながらも、もし牧師が聖書の命じるところ（例えば「十戒」の第九戒「偽証してはならない」）から逸脱しかけることがあるならば、愛をもって厳しくいさめることこそが長老としての、牧会者に対する愛の一つの、欠かしてはならない在り方なのである。その分別もつかず理不尽な指示に盲従することは長老としての自らの未熟を露呈していることになる。

しかし、神の前に自分の罪を告白して深く反省していることを考慮し、主文のとおり判決することが相当である。

第6 結語

当治理委員会は、東京教会、関東地方会、在日大韓基督教会の神聖と秩序を維持するために、主文のとおり判決するものである。

2014年12月29日

在日大韓基督教会治理委員会 委員長 金性済、

委員 金必順 趙永哲 中江洋一 姜富子 金成元 白承豪

在日大韓基督教会 総会長 趙重来、書記 李根秀、総幹事 金柄鎬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10名様～200名様の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韓国語講座・各種こどもクラス
-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グ】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

税込	平日	休・休前日
シングル	¥6,500	¥6,000
ダブル	¥10,500	¥9,700
トリプル	¥13,500	¥12,500
朝食・コーヒー¥200(宿泊者価格)		

< 행동하는 예언자, 최창희 ! > 출판 기념회 개최

고(故) 최창희목사(1930~1995년)의 평전인 “행동하는 예언자 최창희 - 어떤 재일 한국인 목사의 생애 -”(田中伸尚著, 岩波書店) 출판 기념회가 지난 2014년 11월 30일(주일)에 고인이 34년간 재임 한 코쿠라교회에서 열렸다.

저자 타나카씨는 “대역 사건 - 죽음과 삶의 균상”(이와나미 서점)으로 제 59회 일본 에세이스트 클럽 상을 받은 뛰어난 논픽션 작가이다. 전국에서 80여 명이 참가하여 고인에 대한 추억과 서평으로 달아 올랐다.



타나카씨는 최목사가 “최”라는 이름을 그대로 민족어로 불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지문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재일 사람들의 존엄성 회복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투쟁을 “하나님 말씀의 < 현실 >이 반드시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싸웠던” 예언자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이 관점은 모두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므로 재일 소수 민족을 모르는 사람들과 재일의 젊은이들이 읽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 책은 시대 배경이 극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후 일본에 온 동포의 실정과 일본의 외국인 정책, 재일 교회, 재일 개인 역사를 엿볼 수 있다. 사후 20년이 지났어도 그 행동을 추적하여 내면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은 고인이 남긴 방대한 자료와 유족의 열정과 저자의 문필력에 의한 것이다.

최목사가 그토록 정력적으로 행동한 것은 믿음만으로는 말할 수 없다. 고인을 키운 교회와 신학교는 사회 구제보다는 개인의 구제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한반도의 공산주의 하에 있었던 고향인 평안북도 선천(宣川)에서의 괴로운 경험과 제주도 4.3 사건으로 지옥을 본 것이 불합리한 사회와 용감하게 싸울 힘이 되었다고 추측된다.

이 책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기도와 함께 행동한다는 것을 추적한다.

(구입 안내 : 서남 KCC, 저자 가격 2800 엔, 정가 3000 엔 + 세금)
(보고 : 주문홍)

一歩出歩く、クリスチャン発見・企業検索サイト
レホボット・ジャパン
Christian Calling Search Site

http://www.rehobot.jp

Tel : 090-3945-3373
e-mail : info@rehobot.jp
住所 : 兵庫県芦屋市朝日 10-35-100

レホボットジャパン 検索

< 관동지방회 > 후나바시교회 일본기독교단 의장이 설교



“재일대한기독교교회와 일본 기독교단과의 교류라고 하면 좀 과장 일까?” 2014년 12월 14일, 후나바시교회는 일본 기독교단 의장인 이시바시히데오목사(코시가야교)를 초청하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다.

이시바시목사는 서두에서 “행복하면 손뼉을 치자, 조목사님 노래해도 됩니까? 행복하면 태도로 보여 주세요. 그렇죠. 모두 손뼉을 칩시다” 면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총회장인 조중래목사와 교제를 가지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미래 일어나는 것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크리스마스 시기에 후나바시 교회에 초청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라고 인사 하였다.

조목사는 지금 6년 전의 병이 재발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주일 성수 때문에 주말 또는 주일에 외출하여 월요일에는 병원에 다시 들어간다. 그런 조목사는 항상 “일본 기독교단과 재일대한기독교교회는 서로 사이 좋게 선교 협력 아래에서 왕래하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

그 결과 금번에 이시바시목사의 예배 방문으로 실현이 된 것이다.

주일예배 후에 이시바시 목사는 “당신의 이름은 뭐라고 해?” 를 부르면서 복화술도 선보였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는 주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다.

마지막으로 김도자 은퇴장로는 “조중래목사의 회복을 위해서, 한일 우호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 하였다.

(보고 : 편집부)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 CCA-JID 부문 위원회 출석 > 스리랑카 NCC100 주년 기념

2014년 10월 21-22일,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의 JID(정의·국제, 발전과 봉사위원회) 회의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려, 일본에서는 JID 위원인 허백기목사가 참가하였다.

이 위원회는 스리랑카 기독교협의회(NCCSL)의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장소와 일정을 맞추어서 열렸다. CCA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국의 에큐메니컬 이벤트에 최대한 많은 나라에서 참가하여, 아시아 기독교의 단결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JID 부문위원회에는 태국, 호주, 필리핀, 일본,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각각 위원들이, 그리고 CCA 총무인 헨리엣 후타바랏 레방 박사과 스태프 스잔 제이콥씨가 모였다. CCA는 올해 5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제 14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회의는 그것을 위한 준비였다.



먼저 각국 에큐메니컬 운동과 사회상황에 관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에 CCA-JID가 아시아 각국에서 지난 4년 동안 벌여 온 평화 인권 환경에 관한 여러 프로그램에 관한 활동보고를 받았다. 활동보고 중간에 나누어진 문제점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CCA가 만성적으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있는데, 그 원인은 CCA가 서구교회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지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재정위기를 가맹교단들은 오히려 “은혜의 때”(moment of grace)이며 CCA 활동을 뒷받침 하기에 좋은 기회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 후원 방법은 예를 들어 이 스리랑카회의 개최가 그렇듯이 호스트국 교회가 회의개최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거나, 각 위원 파견교단과 단체가 필요한 항공 경비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허목사의 참가도 재일대한기독교회가 파견자의 항공비를 부담하는 형식의 기부로 이루어 졌다.)

JID 회의가 끝난 후에는 계속해서 그 주간 내내 개최된 NCCSL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NCCSL은 일본 NCCJ와 같은 “기독교협의회”이며, 교단과 교파뿐만 아닌 기독교단체들, 즉 YMCA, YWCA, 성서협회, 학생기독교연맹(SCF) 등도 포함되어 있다. NCCSL은 설립이래 사회복지와 장애인과 어린이 권리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많은 공헌을 해 왔다.

불교와 이슬람교 등의 이미지가 강한 스리랑카인이지만 사실은 인구의 7% 이상이 크리스천이며 그 영향력은 현직 대통령이 NCC 기념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보아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기독교의 저력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체험의 시간이었다.

(보고 : 허백기)

<서부지방회> 제 31 회 한일교류 일본 기독교단 교회에서 개최



1월 12일(성인의 날)에 서부 지방회와 일본 기독교단(이하, 교단) 효고 교구가 공동 주최로 “제 31 회 한일 교류 신도 대회”가 교단의 코베 성애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1984년에 재일대한기독교교회와 일본 기독교단 사이에 맺어진 선교 협약을 근거로 서부 지방회와 효고 교구가 협약 실행으로 1985년부터 매년 1월 성인의 날에 개최 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154명(서부지방회 53명, 효고 교구 101명)이 참가했다.

개회예배는 주경중(무코가와교회) 대회 위원장의 사회로 관례가 되어 가고 있는 한일 연합 합창단이 할렐루야 코러스를 합창 한 후에 김종현목사(나니와교회)가 “사랑의 기적”(마태복음 14:15-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리고 오구리목사(小栗献, 코베 聖愛교회)의 사식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석상 헌금은 나니와 교회 사랑의 집 노숙자 선교를 위해 드러졌다. 나카에 요이치 목사(中江洋一, 서부 지방 회 장) 과 스가네 목사(菅根信彦牧師, 효고 교구 총회 의장)가 인사한 후 고토 목사(後藤聡牧師, 梅花教会)가 “선교 협약의 정신을 확인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그리고 9개 분단으로 나누어 점심을 함께 하면서 서로가 신앙 생활에서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대회의 새로운 시도로는 5개의 분단(가정과 신앙의 계승, 지금부터의 교회 학교, 찬양과 교회 음악, 교회와 사회, 청년의 분단)를 만들어서 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어서 김종현목사가 “카마가사키(釜ヶ崎) 사랑의 집 노숙자 전도의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또한 강연에서는 원래 노숙자였던 성도들과 목사 부인이 춤과 찬양을 통하여 청중의 가슴을 크게 흔들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으로부터 20년 째이며, 선교 협약체결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한일 성도가 코베에 모여서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교류를 하는 의미를 각자가 다시 확인하였다.

(보고 : 임영재, 무코가와교회)